# “광주 사직타워에서 아름다운 야경 즐기세요”

### 월산 근린공원선 반려견과 산책
###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일대도 북적

최근 날씨가 초여름을 방불케하면서 광주 도심과 무등산 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직공원 전망타워가 야경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사진은 사직공원 전망타워 4층 옥외 전망대. /김애리 기자

“야경이 아름다운 사직타워에서 데이트하고, 월산 근린공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최근 한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밤에도 더운 기운이 느껴져 관내 야경 명소와 산책로 등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불어 생활 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일대는 건강을 챙기는 운동 마니아들이 운집하면서 ‘스포츠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직타워 ‘야경 황홀’

언덕배기에 우뚝 솟은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광주 도심과 무등산 일대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전망타워를 에워싼 다양한 조명과 4층 옥외 전망대에서 하늘을 비추는 찬란한 색상의 레이저 쇼는 볼거리를 더한다.

또 카페 공간이 마련된 3층은 데이트를 즐기는 이들로 가득하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께에는 인근에 시간우체국도 문을 열 예정이어서 사직동은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장소가 될 전망이다.

◇월산 근린공원 ‘반려견과 함께’

월산 근린공원은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숨은 명소다. 특히 애견족과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다. 산등성이를 타고 키 큰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산기슭 숲 사이로 산책로가 아름답게 조성됐기 때문이다.

또 월산동과 월산5동, 백운동 등 각 방향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월산 근린공원 정상에 조성된 다목적 구장은 애견 운동장으로 불릴 만큼 언제나 반려견과 견주로 붐비고 있으며, 정상에서 바라본 무등산 조망도 일품이다. 산책로 곳곳에 가로등도 설치돼 있어 야간에 찾는 이들도 제법 많다. 현재 이곳에서는 전국 최고 시설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진월동 스포츠 타운 ‘운동 성지’

진월동 남구 다목적체육관부터 진월복합운동장, 국제테니스장으로 이어지는 스포츠 타운은 마치 선수촌을 보는 듯 하다.

특히 지난해 개장한 진월복합운동장은 야간 조명시설까지 갖춰 축구, 풋살, 그라운드 골프 등을 즐기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또 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 앞 광장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마다 ‘진월 달밤 체조’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많게는 100명가량의 주민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운동 삼매경에 빠지고 있다.

이밖에 힐링 쉼터인 푸른길 공원 산책로와 제석산 일대 등산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주성학 기자

## 특전사동지회 내일 민주묘지 참배

특전사동지회가 5·18기념공원의 추모승화공간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1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따르면 특전사동지회는 오는 3일 광주를 찾는다.

인원은 약 40-50명 정도이며, 복장은 이전 참배와 달리 사복으로 정해졌다.

이번 방문은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을 찾아 5·18유공자들의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유공자 명단 미공개’, ‘가짜 유공자’ 등 유언비어가 거짓임을 20만 특전사동지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특전사동지회는 추모승화공간 방문 후 5·18기념재단 대동홀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로부터 당시의 참상을 듣고 별도의 입장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 종료 뒤에는 개별적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안재영 기자

## 고속도로 출구서 급정거 70대 사망

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5분께 호남고속도로 산월나들목 진출 통로에서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인 화물차 운전자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50대 남성인 SUV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고속도로 주행차로에서 진출 통로로 차로를 바꿔 갑자기 멈춰 선 SUV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 /이옥근 기자

# 민간 건축공사 ‘휴먼 에러’ 방지대책 필요

### 박미정 광주시의원 5분 발언…감리자 독립적 업무 수행 등 제도 보완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민간 건축공사의 ‘휴먼 에러(human error)’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사진·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분당 정자교 붕괴, 최근에는 쌍촌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노동자 압사 등 수많은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며 “잇단 참사의 공통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치병인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 건축허가 5만5천417건 중 4만4천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을 지정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다른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건축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샌드위치 패널 등 새로운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품질 관리는 부실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품질 지도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의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영업정지, 공공건설 참여 제한, 과징금 등 부과에도 불법 하도급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문인력 추가 채용을 통해 광주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이 공직사회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 올해 첫선 ‘무등산 인문 축제’ 10일 팡파르

### 11일까지 이틀간 장불재 도서관·체험·공연·전시 등 총망라

광주 동구는 1일 “올해 처음 선보이는 무등산 인문 축제 ‘인문 For:rest’가 오는 10-11일 양일 간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인문 For:rest는 무등산 생태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무등, 숲, 쉼이 있는 인문 포레스트’란 주제 아래 무등산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인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 ▲장불재에서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인문 도서관 ‘1187 라이브러리’ ▲의재로권 미술관 연계 ‘무등산 테마 전시·체험’ 등 시민들이 무등산에서 ‘인문’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중 ‘1187 라이브러리’는 무등산 장불재에서 운영되는 산정(山頂) 도서관으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잠시 쉬어가며 지성을 채우고 아름다운 무등의 자연을 느껴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일 차(10일)에는 학운초등학교부터 문빈정사 앞 축제 무대까지 1.7㎞ 구간을 걷는 ‘무등 인문런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소설가 정지아와 함께하는 ‘인문토크-다정한 인문학’, 인문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산책하는 인문체험 프로그램 ‘인문 숲 투어’, 무등산을 주제로 지역과 상생에 대해 고찰해보는 ‘인문포럼’, ‘별밤지기 DJ 문형식의 음악다방’과 ‘가수 하림과 함께하는 음악 토크 공연’이 준비돼 있다.

2일 차(11일)에는 유치부-중학생 대상 ‘의재미술관 사생대회-무등을 그리다’와 방송인 타일러 초청 ‘인문토크-다정한 인문학’, ‘인문 숲 투어’, ‘춘설 사유 정원’이 이어지며 폐막공연으로 고인이 된 시인 이성부와 문병란을 노래한 ‘시(詩) 콘서트’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무등산 아트밸리’로 조성된 의재로권 5개 미술관(국윤·우제길·무등현대·드영·의재미술관)과 협력해 무등산 특별전 ‘예술의 숲, 무등으로’를 통해 작품 감상과 아트 클래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인문 축제 누리집(www.inmunfestival.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문 스테이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각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은 15명 내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문도시정책과 인문도시기획계(062-608-2171~3)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다양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등산은 광주시민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라며 “조성 5년째를 맞은 인문도시 동구 그리고 무등산 대표 인문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인문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호 기자